

2024
고2 문학
해냄

2024 고2 문학 해냄 | 1(1)(1) 참 맑은 물살-회문산에서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참 맑은 물살-회문산에서」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외에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별 닦는 나무」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별 닦는 나무」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헤적이네
애기 고사리순 좀 봐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 너의 이름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좁 봐.
- 광재구, 「참 맑은 물살 - 회문산에서」

1. ㉠과 같은 표현법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리와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준다.
- ② 모순된 표현 속에서 삶의 진실을 독자들에게 깨우쳐 준다.
- ③ 실제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여 오히려 실제 의미를 부각시킨다.
- ④ 문장의 순서를 변형시킴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 ⑤ 시적 대상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게 전달한다.

2.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살이 발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가는 느낌이 상상돼.
- ② 화자는 고사리와 진달래꽃이 핀 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어.
- ③ ㉠은 자연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
- ④ ㉡는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으로 보여.
- ⑤ ㉢에서는 화자의 심정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3. 윗글을 읽고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과 2연에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느낌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대화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문산의 봄 풍경을 보며 벅차오르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물에 비친 회문산의 모습을 살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가락을 헤적이는 물살’은 부드럽고 고운 느낌을 준다.
- ② ‘애기 고사리순’은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이다.
- ③ ‘출렁거리는 산들’은 역동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의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눈물’에는 봄의 정경에 감동한 화자의 벅찬 감정이 집약되어 있다.
- ⑤ ‘연분홍 사랑’에는 진달래를 비롯한 자연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이 담겨 있다.

5. 다음 중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을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학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봄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화자를 보니 세상에는 나보다 감성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 ②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해 봄을 표현한 작품을 읽고 중학교 때 배웠던 비유법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 ③ 봄에 나타나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 표현한 작품을 보니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어.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을 읽으니 봄이란 계절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져 행복했어.
- ⑤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편의 시로 표현해낸 작가의 뛰어난 역량이 인상적이었고,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고 싶어졌어.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예찬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곽재구는 「참 맑은 물살」에서도 서정시의 본령을 떠나지 않는다. 곽재구의 시작(詩作) 태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튼튼한 서정시”를 만듦으로써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대의 삶을 시인으로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시인으로서의 그의 자기 이해 및 소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의 감성을 사랑과 희망의 운율로 살려 내는 그의 서정시는 그래서 고독한 개인, 즉 서정적 자아와 집단적 꿈의 간극을 뛰어넘어 거의 민족적 서정시라 불릴 만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부드럽되 냉철한 역사의식에 근거한 현실 분석의 시적 리얼리즘을 성취하고 있다. 서정시를 특별한 언술의 대상이나 상황에서 자유로운 구조적 단순성과 심미적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백적 언술로서 이해할 때 우리는 곽재구의 시에서 바로 이러한 서정시의 한 뛰어난 예를 보게 되는 것이다.

- 김영옥, 『서정의 깊이로 탐색되는 삶의 본원 - 곽재구 「참 맑은 물살」』 중

- ①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헤적이네’는 자신이 뿌리를 둔 땅의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현실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②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는 암담한 과거이지만 사랑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 ③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은 인칭 대명사를 통해 개인을 넘어 우리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 ④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부신 허벅지 좀 봐’에서는 역사의식을 고려하여 역사적 아픔을 형상화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한 몸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에는 연분홍 사랑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이루었으면 하는 세상을 지칭하며 민족적 서정으로 확대하고 있어.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헤적이네
 ㉠애기 고사리순 좀 봐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 광재구, 「참 맑은 물살 - ㉣회문산에서」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1연에서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으로 생명력과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로서, 화자가 자연에서 느낀 감동에 대해 함께 공감하면서 호응을 보이고 있다.
- ③ ㉢: 2연의 중심 대상으로, 흐르는 물살에 비친 아름다운 산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 봄의 자연물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답게 공존하는 모습으로 화자에게는 벅찬 감동을 준다.
- ⑤ ㉣: 이념의 대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곳으로 이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9. 윗글의 시구 중 수사법이 이질적인 것은?

- ① 참 맑은 물살 / 발가락 새 헤적이네
- ② 애기 고사리순 좀 봐
- ③ 참 고운 물살 /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 ④ 출렁거리는 산들의 / 부신 허벅지 좀 봐
- ⑤ 한 몸되어 흐르는 /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유형

<보기>

「참 맑은 물살」은 섬진강가의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쓴 시이다. 부제에 쓰인 ‘회문산’은 전북 순창과 임실 경계에 가로놓인 아름다운 산으로 그 산줄기에 우리 근현대사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구한말 의병의 드높은 기치가 오르기도 했지만, 해방 후 한국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곳이다. 작가는 이곳에서 그 죽음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① 생명력이 가득한 자연을 마주하며 앞으로邁고 싶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역사적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 ③ 의인화된 자연물과의 대화를 통해 고달픈 삶의 현실에서 위안을 얻고 있군.
- ④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계를 형상화한 시구를 찾을 수 있군.
- 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참 맑은 물살-회문산에서」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외에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별 닦는 나무」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별 닦는 나무」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해적이네
 ㉠애기 고사리순 좀 봐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 곽재구, 「참 맑은 물살 - ㉤회문산에서」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식 구성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명령적 어조로 자연을 예찬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간결한 시행으로 화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운적 요소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있다.
- ③ 간결한 시행 속에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면서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과 화자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생명력이 가득한 자연을 마주하며 느끼는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②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어 생명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화자가 느낀 감흥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윗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봄의 자연물들을 서로 교감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봄의 자연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연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며 무기력했던 화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연의 덕성을 예찬하며 이를 닮고자 하는 교훈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아름다운 봄의 자연 속에서 오히려 슬픔을 떠올리고 이를 눈물 나는 사랑으로 표현하였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에서는 의인법을 발견할 수 있다. 뒷글은 자연에 대한 의인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시적 대상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드러내는 '비유법'의 일종이며, 이를 통해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효과까지 나타난다.

①, ②, ③, ④는 의인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없다.

2. [정답] ④

㉡는 자연의 교감을 감상하며 느끼는 화자의 감동, 벅차오름을 표현한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없다.

① 1연에서 '참 맑은 물살 / 발가락 새 헤적이네'를 통해 물살이 발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② '애기 고사리순'과 '연분홍 사랑'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는 고사리와 진달래꽃이 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는 자연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확장하여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⑤ ㉢를 통해 자연에 감동하는 화자의 심정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②

뒷글은 '~좀 봐'를 통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대화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1연과 2연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상 안정감을 준다.

③ 뒷글은 2연에서 물살을 의인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참 맑은 물살/발가락 새 헤적이네', '뜨거워지는'을 통해 물살이 발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가는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회문산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화자의 심정을 표

현하고 있다.

⑤ '맑은', '출렁거리는', '부신'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고,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회문산의 모습을 살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정답] ③

'출렁거리는 산들'은 물살에 드리워지는 산의 경관을 사람의 부드러운 허벅지에 비유한 표현이다. 이를 통해 자연의 웅장함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발가락을 헤적이는 '물살'에서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으며, 이를 통해 부드럽고 고운 느낌을 드러낸다.

② '애기 고사리순'은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벅찬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연분홍 사랑'을 통해 진달래를 비롯한 봄의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드러낸다.

5. [정답] ④

문학은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일상의 언어가 문학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 독자들은 문학의 함축적 언어에서 다양한 의미를 읽어내면서 작가의 내면과 마주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미적 기능을 느낄 수 있다. ④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을 읽고, 봄이라는 계절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을 잘 느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① 화자를 보고 '세상에는 나보다 감성적인 사람이 많다'라고 느낀 것은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②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을 느낀 것보다는 문학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을 단순 정리한 것이다.

③ 뒷글에서 봄에 나타나는 계절에 변화에 대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의 중요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정서적·미적 기능과도 관련이 없다.

⑤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은 맞으나, 이를 작가의 뛰어난 역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학의 정

서적·미적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6. **정답** ④

화자는 자연물에 의인법을 사용하여 생명력을 부여하고, 이들을 예찬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윗글에서는 반복적 호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윗글에서 말을 건네는 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해 두지는 않았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는 윗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의인법은 사용되었으나, 인공물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정답** ④

윗글의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부신 허벅지 좀 봐’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봄의 생명력 가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서 역사의식을 고려하여 역사적 아픔을 형상화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①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헤적이네’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대의 삶을 시인으로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나타난다. 이는 화자가 신이 뿌리를 둔 땅의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현실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②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는 ‘회문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던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볼 때 암담한 과거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모습을 표현한 시구라고 볼 수 있다.
- ③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을 통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개념을 확장시켰다.
- ⑤ ‘한 몸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을 통해 자연이 아름답게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이는 연분홍 사랑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이루었으면 하는 세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8. **정답** ②

㉠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시어로, 공동체적 삶의 확대를 나타낸다. 그러나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로는 해석할 수 없다.

- ① ㉠은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으로, 생명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이다.
- ③ ㉡은 강물에 투영된 산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의인법을 활용한 부분이다.
- ④ ㉢은 진달래꽃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진달래를 비롯한 봄의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드러냈다.
- ⑤ ㉣은 윗글의 공간적 배경으로, 이념의 대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 공간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9. **정답** ②

윗글의 시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사법은 ‘의인법’이다. 그러나 ㉡에서는 ‘애기’라는 시어는 있으나, 이는 사람처럼 표현했다기보다는 어린 고사리순을 나타낸 표현으로, 의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③, ④, ⑤는 의인법이 적용된 시구이다.

10. **정답** ①

화자는 눈앞에 펼쳐진 봄의 여러 자연물들, 즉 맑은 물살과 연분홍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에서 과거에 한국 전쟁 도중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을 보며 맑게, 곱게, 환하게 어우러지는 조화의미를 인간의 삶에도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맞이하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② 윗글에서는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의인화된 자연물은 등장하지만 이 자연물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 ④ 하강의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지천으로 솟았네’ 시구를 통해 오히려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⑤ 윗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가 아니다.

11. 정답 ⑤

윗글에서는 간결한 시행 속에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면서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① 윗글은 1연과 2연의 구조를 반복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지,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볼 수 없다.
- ② 윗글에서는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자의 자연에 대한 예찬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 ③ 윗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윗글에서는 명령적 어조가 아닌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다.

12. 정답 ⑤

윗글에서는 대비되는 소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윗글에서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생명력이 가득한 자연을 마주하며 느끼는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각운은 시에서 구나 행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것을 말하는데, 윗글에서는 ‘~좁 봐’, ‘~네’ 등이 반복되어 리듬감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 ② ‘~좁 봐’에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서 독자에게 친근감이 다가가고 있다.
- ③ 윗글은 간결한 시행 속에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면서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1연과 2연의 서두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되풀이하여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 또는 화자가 위치한 장소를 제시하며 시의 중심 대상을 보여 주고 있다.

13. 정답 ①

윗글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고 볼 수 없다. 사물에 대한 시선의 이동만 나타난다.

- ② 윗글에서는 1연과 2연에서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참 고운 물살/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의/부신 허벅지 좁 봐’에서 의인법이 나타나고,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느끼는 감흥을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윗글에서는 봄의 정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 화자는 봄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눈앞에 펼쳐진 맑은 물살과 연분홍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있고 이를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정답 ①

화자는 봄의 자연물들을 서로 교감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이러한 대상들에서 느끼는 벅찬 감정을 ‘눈물’ 나는 ‘사랑’으로 표현하였다. 화자는 아름다운 봄의 정경에 경탄하고 감동하며 이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② 윗글에서 화자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지 않다.
- ③ 자연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무기력했던 화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화자는 자연의 덕성을 예찬하며 이를 닮고자 하는 교훈적 태도를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윗글은 자연을 바라보며 조화의미를 예찬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⑤ 화자는 아름다운 봄의 자연 속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닌 감동을 느끼고 있다.